

불자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을 수행한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인턴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사건을 저지른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난장판이란 단어가 너무 점잖아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육두문자로 확 바꾸고 싶지만 품격을 위해 꼭 참는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그동안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 13위의 경제국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은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힘든 마음의 상처가 아닐 수 없다.

구어체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그것도 글로 말하게 말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을까? 속된 말로 화장발이 벗겨지자 불성사나운 민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만 셈이다.

하기야 그 대변인은 평소에도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닌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24시간 내내 화장을 하고 살 수는 없는 만큼 언제 어느 때 납들에게 보이더라도 크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얼굴은 유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이 지각없는 한 남성의 은밀한 스캔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압축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사회가 양산해 놓은 이른바 '갑을관계'의 부작용에서 빚어진, 어떤 측면에서는 필연적 사고임을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최근 잇달아 터진 대기업 상무의 항공기 내 추태사건이나 제빵회사 회장의 호텔내내 폭행사건, 그리고 남양유업 직원의 막말사건 등은 모두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해외출장 중에 일사적인 여대생을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할 수 있었던 심리적 배경에는 이런 갑을관계의 비대칭성이 단단히 한몫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각종 유형의 갑을관계로 얽히고설켜있는 도덕적 후진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이다.

원래 '갑'과 '을'이라는 말은 계약상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번거롭게 반복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만든 지극히 편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쌍무적인 인간관계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갑과 을은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차 강자와 약자를 의미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사와 대리점, 임대와 임차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등의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자조 섞인 말로 변질되고 말았다.

흔히 인터넷에서 갑의 횡포를 빗대어 '갑질한다'고 하거나 갑중의 갑을 가리켜 '슈퍼갑'이라고 비꼬는 것은 이런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 씩씩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풍정이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요즘 갑을관계와 관련하여 직장인들의 저녁 술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인즉 "을처럼 행동하는 갑을 '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갑이나 된 듯이 거들먹거리는 을을 '갑'이라고 하는데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사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을'이고 또 '을'이어야 한다고 믿고 살자."

저마다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이자 내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인간적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 같아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불자들은 연기와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아니 모두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언젠가 갑이 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는 연기와 무상의 다르마는 평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거듭 일깨워준다.

문득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위에서 열거해본 갑질의 장본인들에게 연기와 무상의 부처님 범을 들려주고 싶다는 짓코는 생각이 들었다.

社說

부처님 가르침 대로 살면 '가화만사성'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정부가 가정의 달을 정한 의미는 '사랑과 정성으로 일궈내는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자'는 바람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이혼과 가정폭력, 경제적 파탄 등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를 맞는 가정이 늘고 있다.

자녀들은 부모 봉양을 꺼리고, 부부 사이에서 맺은 결혼 서약이 너무 쉽게 깨져버린 결과다. 특히 생활고에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가정문화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흔들리는 가정을 복원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가 가정

유지의 근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행복한 가정의 99%는 노력의 열매'라고 하지 않는가. 위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도 시급하다. 흔들리는 가정을 복원하는 데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때다.

부처님도 <인욕경>에서 선의 최상은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중아함 33권 <선경>에서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고, 스승의 가르침 또한 잘 받들고 따르라고 설하셨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모두가 건강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가정이 안정돼야 사회도 안정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핵가족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덕목이다.

티낙한 스님의 방한이 남긴 것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외의 유명 스님과 명상 전문가들의 방한이 잦았다. 지난해 람스 출신의 티베트 승려 마티의 리카르와 'MBSR(마음챙김 명상)'의 창시자 존 카밧진 박사가 한국을 찾았고, 올해 1월 아잔브라함 스님이, 5월 티낙한 스님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세계적인 명상 수행자이자 티낙한 스님의 명상 프로그램에는 나이와 성별,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지난 5월 1일 입국한 티낙한 스님은 2일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부터 4박 5일간 월정사에서, 8일에는 이틀간 중앙승가대에서 명상수련을 이끌었다. 부산 법어사와 신정동 국제선센터, 잠실 체육관에서 대중법회를 진행했다.

티낙한 스님과 플럼빌리지 법사단이 진행하는 명상 수행 프로그램에는 한국 사부대중과 시민과 이웃종교인까지 대거 몰렸다. 스님은 모든 문제는 '두려움'과 '화'에서 비롯되고, 이를 벗어나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참가대중에게 설했다. 또한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이 괴로움을 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고통까지 치유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사실, 한국사회는 경쟁과 이념대립, 황금만능주의로 인한 병폐가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마음 수행의 증가인 불교가 해외 명상가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컬하다. 물론 지난해 힐링 열풍으로 불교계는 정토회 지도법사 범룡 스님, 뉴햄프셔대 교수 해민 스님이라는 '스타'를 배출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명상 수행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대중을 치유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한국불교는 현재 '도그마'다. 전통적 관습 수련과 위빠사나, 대만 불교, 미국식 마음챙김 명상 등이 난립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곳곳에 한국불교를 전하며, 수많은 외국인 제자를 둔 승산 스님 등과 같은 선각자가 그리워진다. 굳이 '스타'가 아니라도 쉽고 깊이있게 불교를 전하는 스승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광교국 02)2004-8213-6
현대불교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사부대중 칼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
연구소장

문화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3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전시협약을 맺어 10월29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하는 특별기획전 '황금의 나라, 신라'전을 열기로 했었다.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토머스 캠펠 관장이 2001년 한국에서 '신비한 황금의 나라, 신라 황금전'을 관람하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반가사유상을 본 뒤 전시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고 한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은 1998년 한국의 국보급 금동관(호암미술관 소장)을 전시하다가 파손시켰다는 논란이 있었다.

또한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결정으로 꼽히는 유물로, 1960~70년대 국외 순회전시인 '한국 미술 5000년'전에 내보낸 이래 여러 차례 국외 전시에 나왔다. 7번째인 2008년

벨기에 전시로 반출될 당시에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너무 자주 해외로 나간다는 반대의사가 많았으며, 이번 4월 문화재 위원회도 많은 양의 국보, 보물이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해 조절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었다.

문제는 문화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행태에 있는 것이다. 마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보는 것 같아서 몹시 씩씩하다. 일개 박물관의 관장이 달라고 하면 다 퍼주어야 하는 것인가와 문화재 당국과 사전 협의를 먼저 한 후 목록을 작성했어야 했다.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많은 국보와 보물을 한 번에 반출하는가? 반가사유상의 경우 하나밖에 없는 국보가 너무 자주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라도 하나 밖에 없는 국보는 절대 외부 반출을 중지해야 한다.

우리문화를 홍보하려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존의 퍼주기식 홍보보다는 국격 있는 홍보를 하라는 것이다. 국보 보물을 잔뜩 가지고 나가서 쉽게 전시하는 것은 70년대나 하는 행태다.

오히려 미국의 개인, 또는 단체가 공공 숨겨두고 소장한 우리의 문화재를 세상으로 나오게 해서 전시회를 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가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78호와 83호가 국립박물관에서 교체 전시하는 것은, 유물을 수장고에서 좀 쉬게 하지는 것이다. 만약 문화부와 국립박물관 직원들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국립박물관과 업무를 협의해야 할 정부부서가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부라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종전부의 답장을 할여버리고, 국격도 없는 문화외교를 한다고 한다.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청을 하대하는 권위외식에 젖어있고, 합리적인 문화유산 관리에는 등안시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 전시는 자체하는 추세다. 프랑스 경우 루브르박물관의 간판 소장품인 <모나리자>를 단 한 번 일본 전시에 내보냈을 뿐이고, 외국 전시는 주로 복제

품을 활용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공인 복제품' 제도를 두어 국가공인기관에서 원작을 복제한 유물로 국외 전시를 대체하고 있다. 이태리 로마 거리에 있는 조각상은 대부분 복제품이다.

이참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은 통합하라.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연구소와 국립박물관의 지역 국립박물관도 통합하라. 통합하면 이들은 문화유산을 관리, 전시, 활용하는 지방청이 되는 것이다.

현재처럼 국가 지정 문화재를 정부가 직접관리하고, 지역 문화재 관리에 직접적으로 지도도하고 혐의도 빠르고 얼마나 효율적인 방식인가?

이제 밤그릇 싸움 그만하고 두 기관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통합 관리하는 당당한 국가 기구로 거듭나라. 이름은 문화유산부로 하든, 박물관부로 하든 상관없다. 제발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해주시 바란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기·무상 설법을 모든 甲에게

반가사유상 반출과 국격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 (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넘을 수 있는 비결(秘訣)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시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